

LG, “그룹 차원에서 ABS 키운다”

투명·난연제품으로 수익성 확보 ... PDP TV 및 홈쇼핑 세계1위 전략

LG그룹이 고부가가치 합성수지인 ABS와 PDP TV, 홈쇼핑 등 3개 사업을 글로벌 1등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LG그룹은 현재 세계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광저장장치, CDMA WLL 단말기, 중대형 TFT-LCD 등 외에 성장성이 높고 이미 시장 1위에 근접한 3개 사업을 집중육성 분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ABS와 PDP TV 사업은 2005년까지 시장지배력과 수익성에서 확실한 세계 1위를 달성하고 홈쇼핑 사업은 국내시장에서 1위 자리를 굳힌 뒤 중국시장 진출로 글로벌 성공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LG화학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ABS수지 사업은 세계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승부처인 중국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생산거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범용 ABS 제품 중심의 성장 확대와 투명·난연제품 등 고부가가치 특수 ABS 제품 중심의 수익성 확보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 중국에서 확고한 1위 위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PDP TV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TV 사업은 핵심 칩셋과 솔루션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브랜드 파워와 수익성 극대화 전략을 통해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 지역 사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2005년까지 현재 세계 3위 수준인 PDP TV를 1위로 끌어올리고 LCD TV와 프로젝션 TV 등 전체 디지털TV 사업에서 글로벌 톱3로 올라선다는 전략이다.

8월28일과 29일에는 경기도 이천 LG인하원에서 구본무 회장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CEO 전략회의>를 열고 ABS, PDP TV, 홈쇼핑 3개 사업의 1등 달성 전략을 논의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선진 이론과 세계적 기업 사례를 LG의 실제 사업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며 잠재력 있는 몇 개의 사업을 선정해 어떻게 1등으로 만들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CEO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기회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LG그룹은 회의기간 중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Michael J. Silverstein 수석부사장을 초청해 각 기업의 CEO들과 <일등사업의 요건 및 CEO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하기도 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9/01>